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 박차”

취임 100일 맞은 정철원 담양군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

농촌협약 369억원·은빛급식센터 개관·생활인구 전남 1위 달성
군민과 소통 강화... 주민 삶 개선할 체계형 사업 차근차근 실행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정 정상화를 위한 기반 정비와 함께,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입해 무정·금성·월산·수북·봉산·대전면 등 지역의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거점별 생활서비스 자족률을 높이고, 보육·의료·문화·교통 등 기반을 연계해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임 100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지 않은 결과물이 있었다”라며 그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정 군수는 “농업 분야에서도 담양 대표 농산물인 담양쌀이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을 열고 올해는 200t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군은 이를 위해 물류비와 포장재 등 약 5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총수출액은 약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청년농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지난달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영농 정착 지원과 정책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도 “지난달 문을 연 ‘은빛급식센터’로 정기적인 무료급식과 함께 35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운영한다”라며 “정성을 담은 한

끼 식사로 어르신 복지를 지원하며 공동체 돌봄 체계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생활인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우리 군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준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중 3분기 연속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담양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39만 8000여명이다. 이 중 체류인구가 35만 2000여명에 달해 등록인구의 7.7배를 넘었다.

특히 관광·체육 목적 방문자 비중이 높고, 재방문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아 다양한 세대가 고르게 찾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흐름을 정주 인구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69억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에도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총 13개 사업,

약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 안전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함께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마을로 찾아 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 행위로, 기존 읍·면 단위에서 325개 마을 단위로 확대해 8월까지 이어간다.

정 군수는 이를 통해 생활 민원은 즉시 조치하며 중장기 과제는 예산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실행력 있는 현장 행위로 군민과의 소통 폭을 넓혀갈 생각이다.

끝으로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이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양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으니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윤병태(맨 앞) 나주시장이 지난 11일 부분 개통한 나주호 둘레길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호 둘레길 첫 개방... 호수·숲 품은 명품 걷기 코스

3개 구간 우선...9월 전면 개통

나주시가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로 주목받는 ‘나주호 둘레길’ 일부 구간을 지난 11일 처음으로 개방했다.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나주호 둘레길의 총길이는 8.0km이다. 오는 9월 전면 개통을 목표로 개설 공사가 한창이다.

이날 개방된 둘레길은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3개 구간 총 6.4km로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인

근 3.6km’, ‘1주차장(KPS연수원 인근)-임도 1.7km’, ‘2주차장(녹야원 인근) 측 1.1km’ 등이다.

나주시는 이번 부분 개통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실질적인 이용 경험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보완해 전면 개통 전까지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나주호 둘레길은 숲길과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걷기 코스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색다른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남은 구간 공사와 함께 안전 점검, 안

내 시스템 정비,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전면 개통하는 나주호 둘레길은 1코스-‘한전KPS 연수원 도로 끝 지점-녹야원’, 2코스-‘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앞’으로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명한 하늘과 잔잔한 호수, 초록빛 숲이 어우러진 나주호의 풍경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공간”이라며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두가 사랑하는 명품 걷기 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함평군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

장고산마을 환경 개선 20억 확보

함평읍 장고산마을 주민들이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함평군은 함평읍 장고산마을이 최근 지방시대 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중심 공모’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장고산마을 대표로 최현덕 이장이 지난달 1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대면 발표평가에 나서 마을의 변화 필요성과 의지

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장고산마을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생활·위생·안전 기반 시설 정비 ▲빈집 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 케어 등 종합적인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장고산마을 외에도 대동면 금적마을, 학교면 반송·반곡마을 등 총 6개 마을이 기선전돼 개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외 마을에도 사전수요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 주민 자치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 함평군의 혁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농업대학·농업인 단체 회원 안전교육

장성군이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성미래농업대학 청년국제농업학과·스마트기후대응학과 교육생과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집중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여름철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운영절차 예방법도 전달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령 가운데 70

세 이상 농업인의 다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60~69세도 3%를 기록해 50세 미만인 1% 수준인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장성지역은 전체 농업인구의 49.3%가 60세 이상 고령농으로, 농업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사고 ‘제로(0)화’를 목표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